

제 320호 · 2015년 8월 19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2018년까지 리퍼컨테이너 운송능력 20% 증가 전망
2. APM 터미널, 파나마 운하 확장 대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터미널 확충
3. 러, 브론카 신항만, CMA CGM 통해 발트해 컨물동량 증대 예정
4. DHL, 아시아 통합육상운송서비스 개시

물류시장동향

1. COSCO · CSCL 합병시 태평양항로 E/B 최대 선사로 부상
2. 시애틀 항만,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와 15년 임대차계약 체결

공지사항

1.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2. 한 · 러 물류 협력세미나 개최
3. 2015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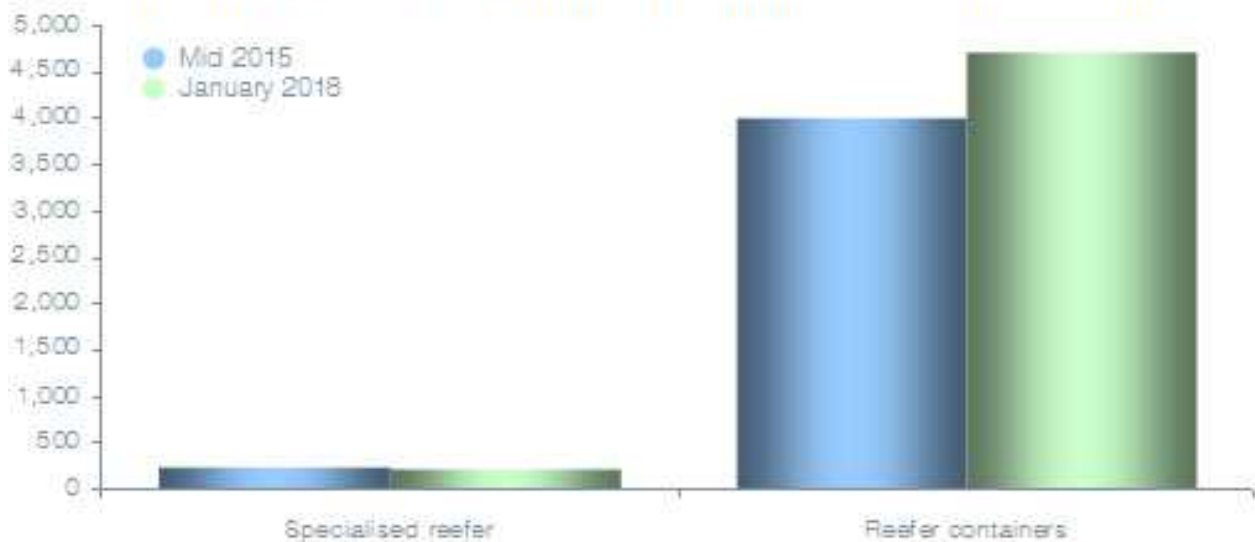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□ 2018년까지 리퍼컨테이너 운송능력 20% 증가 전망

- Drewry의 리퍼운송시장 연례보고서¹⁾에 따르면 리퍼컨테이너선 운송능력은 매년 6%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%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리퍼전용선박은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, 이러한 추세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특히 냉동전용선박의 선령은 평균 25년이며 현재 대형 리퍼전용선박의 신조는 거의 없고 선박 재활용만 이뤄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선박 척수는 감소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리퍼전용선박의 운송능력은 감소하는 반면 리퍼컨테이너 선박의 운송수요 증가는 가속화될 것임
 - 실제 2014년 냉동·냉장화물의 해상물동량은 4.9% 증가하였고, 증가분은 모두 리퍼컨테이너선으로 운송되었음

Forecast change in reefer capacity provision, 2015-2018 (million cft)



Note: Specialised reefer vessels >100,000 cft.

자료 : www.drewry.co.uk

- 이러한 리퍼컨테이너 운송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, 리퍼컨테이너의 소석률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
 - 리퍼컨테이너의 해상물동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, 운송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리퍼컨테이너 소석률은 입방피트 당 20.4~20.6톤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임

1) Drewry Shipping Consultants Ltd, *Reefer Shipping Market Annual Review & Forecast 2015/2015*.

- 일부 리퍼전용선사는 정기컨테이너선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회복을 꾀하고 있음
 - 리퍼전용선사 Seatrade는 완전히 컨테이너화된 리퍼선을 건조중임
 - Seatrade는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짧은 운송시간, 직항 및 냉동·냉장 전문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등 정기 컨테이너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
 - 동시에 자사를 FDD[빠름(Fast), 직항(Direct), 전문(Dedicated)] 운영사로 칭하며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음
 - Seatrade는 500~700 feu 크기의 선박 6척을 발주하였고, 6척의 추가 건조를 고려중임
 - 다른 리퍼전용선사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지는 지켜봐야 함
- 향후 리퍼전용선박과 리퍼컨테이너선 간 극심한 냉동·냉장 화물 적취경쟁은 지속될 것
이나,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전체적인 소석률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drewry.co.uk, 2015.8.7.
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51-797-4683, hmjeon@kmi.re.kr)

□ APM 터미널, 파나마 운하 확장 대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터미널 확충

- AP 몰러-머스크 그룹의 터미널 운영부문 계열사인 APM 터미널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파나마 운하 확장계획에 맞춰 운하 주변 국가들의 항만 터미널을 확충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 - 콜롬비아의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카르타헤나(Cartagena) 터미널이 대표적으로, APM 터미널은 최근 콜롬비아 항만 운영사인 Compas S. A와 합작기업을 설립해 포스트-파나마스급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을 확장하는 협정을 체결했음
 - 동 협정에서 APM 터미널측은 51%의 지분을 가지며, 향후 터미널 확장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음
 - 한편 카르타헤나의 화물 처리량은 2014년 2백23만 TEU를 기록했음
 -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공정률 91.3%를 기록하고 있으며, '15년 8월 현재는 완공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
 -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는 크게 △ 갑문의 추가 건설 △ 태평양 수로 증설 △ 수로 개·보수(준설) △ 운하로의 수량 공급 능력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 - 동 공사는 사전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6년간 1백 건 이상의 연구를 진행한 끝에 지난 2007년 9월 착공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음
- * 최초 소요 예산은 미화 52억 달러 규모임

<파나마운하 확장으로 떠오르는 항만들과 카르타헤나항만>



자료 : thebulletinpanama.com 및 www.123rf.com

- 파나마 운하 확장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APM 터미널, CMA-CGM 등 글로벌 터미널운영사(GTOs)들은 모인(Moin, 코스타리카), 카리브해 해역의 킹스턴(자메이카) 등 전략적인 요충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하는 등 이 지역 일대의 컨테이너 해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음

- 특히 AP 몰러-머스크 그룹은 대서양측 파나마 운하 기점으로부터 불과 14시간 이내 거리인 모인의 개발에 이미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왔음
 - * APM 터미널은 코스타리카 정부로부터 33년간 터미널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음
 - * 상기 계획은 2016년 1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임
- APM 터미널은 멕시코 카르데나스에도 심해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음
- APM 터미널의 경쟁사인 CMA-CGM측은 자메이카 킹스턴에(파나마 운하로부터 2일 소요)에 자사의 컨테이너 허브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메이카 정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음
- APM 터미널의 협력사인 콜롬비아의 Compas S.A는 콜롬비아 굴지의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재벌이자 콜롬비아 유수의 터미널 운영사로 미국의 텍사스, 휴스턴 및 파나마 등에 진출하고 있음
- 지역 기반 터미널 운영사와의 합종연횡 및 대규모 투자 등 향후 APM 터미널, CMA-CGM를 비롯한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자료 : www.gsintell.com, 2015.8.14.

박성준 전문 연구원 (☎ 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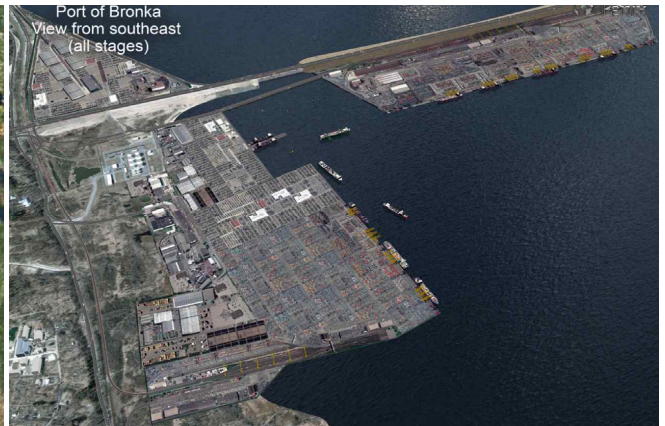
□ 러, 브론카 신항만, CMA CGM 통해 발트해 컨물동량 증대 예정

- 러시아는 브론카 항만 개장을 통해 발트해를 경유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며, 프랑스 선사 CMA CGM가 올 9월부터 기항할 예정임
- 현재 신항만의 1단계 개발은 90% 이상 완료되었음
 - 1단계 개발에 약 5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, 2036년까지 총 12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
- CMA CGM은 기항 횟수를 내년 1월부터 주 3회로 증가시킬 예정임

<브론카 항만 위치 및 전경>



출처: www.port-bronka.ru



- 브론카 신항만의 주요 시설내역은 다음과 같음
 - 107 헥타르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
 - 57 헥타르 규모의 Ro-Ro 터미널
 - 42 헥타르 규모의 물류센터 시설
- 항만의 주 항로 수심은 11 미터이나, 추후 14 미터까지 확장할 예정임
 - 이를 통해 8,100 TEU급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예정임

자료 : www.joc.com, 2015.8.11

신수용 전문연구원 (☎ 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)

□ DHL, 아시아 통합육상운송서비스 개시

- DHL Global Forwarding은 아시아의 핵심 시장인 싱가포르, 페낭, 방콕, 하노이, 심천을 잇는 통합 육상운송서비스를 개시했음
 - 본 지역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육상운송물량이 연평균 8.3%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는 총 8,2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 - DHL의 'Asia Connect 소량화물서비스'를 이용하면 상기 5개 도시에서 시간 및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고 막힘없는(seamless) 운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
 - 'Asia Connect'는 2011년에 시작된 배송 서비스로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태국을 연결하는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베트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추가되었음
- DHL의 신규 육상운송서비스는 해상운송보다 빠르며, 항공화물보다 비용 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
 - 예를 들어, 심천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화물을 해상을 통해 복합운송하면 약 13일이 소요되지만 육상운송을 이용하면 5일만 소요되며, 항공의 경우 4일이 소요되나 비용은 매우 높은 실정임
 - DHL의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면, 페낭-싱가포르 1일, 하노이-방콕은 3일, 하노이-심천은 2일, 심천-페낭은 6일 만에 운송이 가능함
- DHL의 운송 네트워크 확대는 중국의 '일대일로(一帶一路)' 전략과 관련이 있음
 -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을 위해 육상기반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각 시장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 - DHL은 해당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주요 도시간의 운송 네트워크를 통합했음
- DHL의 운송 네트워크는 이미 주요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, 향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임
 - DHL의 복합 네트워크는 항공, 철도, 육상 및 해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구축되어 있음
 - 2015년 말로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아세안경제공동체(AEC)를 통해 원활한 무역 및 금융환경이 조성되면 아시아 시장이 점차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며, 향후 상품, 서비스, 투자,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세안 지역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

자료 : postandparcel.info, 2015.8.14.

이홍원 연구원 (☎ 051-797-4783, hongwon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COSCO · CSCL 합병시 태평양항로 E/B 최대 선사로 부상

- 두 회사가 최근 상하이, 심천 및 홍콩에서 공동으로 거래 중지를 발표한 후 합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
 - 코스코와 CSCL 합병시 CMA CGM 다음으로 세계 네 번째로 큰 컨테이너 운송회사가 됨
 - 그러나 양사의 합병은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
- 코스코는 중국 대외운송의 약 7.1%를 점유하고 있고, CSCL은 약 4.9%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두 회사의 합병은 동향 태평양항로 시장의 12%를 점유 할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에버그린은 올해 태평양항로 물동량의 약 10.9%를 처리했음

자료 : www.joc.com, 2015.8.12.

김주혜 연구원 (☎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)

□ 시애틀 항만,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와 15년 임대차계약 체결

- 미국 서안에 위치한 시애틀 항만청은 미국 여객선 전문업체인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(NCLH)와 15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
 - NCLH은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(Norwegian Cruise Line), 오세아니아 크루즈(Oceania Cruises), 리젠트 세븐시즈 크루즈(Regent Seven Seas Cruises) 세 회사의 모회사임
 - 협정에 따르면, 임대기간 동안 NCLH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 구축되며, 이를 위해 7,3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됨
 - 편성된 예산 중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하는 P66 시설 확장과 벨 스트리트 크루즈 터미널(Bell Street Cruise Terminal) 개발에 약 3,0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
-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지역은 6,500만 달러의 지방세 징수와 9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총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됨
- 시애틀 크루즈 사업을 계기로 향후 크루즈터미널 사업은 미서부 해안지역의 주요 비즈니스로 확대될 전망이다

자료 : www.portnews.ru, 2015.8.13.

황윤희 연구원 (☎ 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)

<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>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**중소·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** 다음과 같이 **해외진출 상시 컨설팅**과 **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**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□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·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□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·센터·창고·항만·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·투자·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·지사·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□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·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 - 현지 경제·무역·인프라·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·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 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□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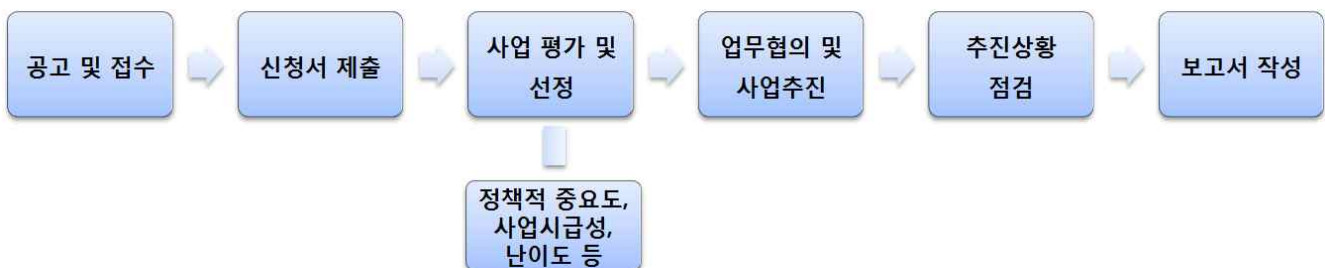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□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
 -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· 시급성 · 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·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· 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□ 사업 추진절차



< 한·러 물류 협력세미나 개최 >

안녕하십니까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.

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과 한러비즈니스협의회(KRBC)가 주관하는 '한·러 물류협력 세미나'가 다가오는 9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됩니다.

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 시 : 2015년 9월 15일(화) - 18일(금)
- 장 소 :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
- 주 최 : 해양수산부
- 주 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, 한러비즈니스협의회(KRBC)

- 참가신청
 - 신청기한 : 8월 25일
 - 신청방법 :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(e-mail: harimyi@kmi.re.kr)

- 문 의
 - KMI 국제물류연구실 이하림 연구원 Tel. 051-797-4758
 - KRBC 서하늘 과장 Tel. 02-561-0305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림

2015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모집 공고

○ 목적

-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·투자사업의 발굴·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(경제·기술·재무·법률 등의 측면)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*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·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

○ 신청 대상자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
- 재무적 투자자(「은행법」 제8조 따른 은행,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)
 - * 단,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- 화주(貨主)기업(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)
 - * 단,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
○ 지원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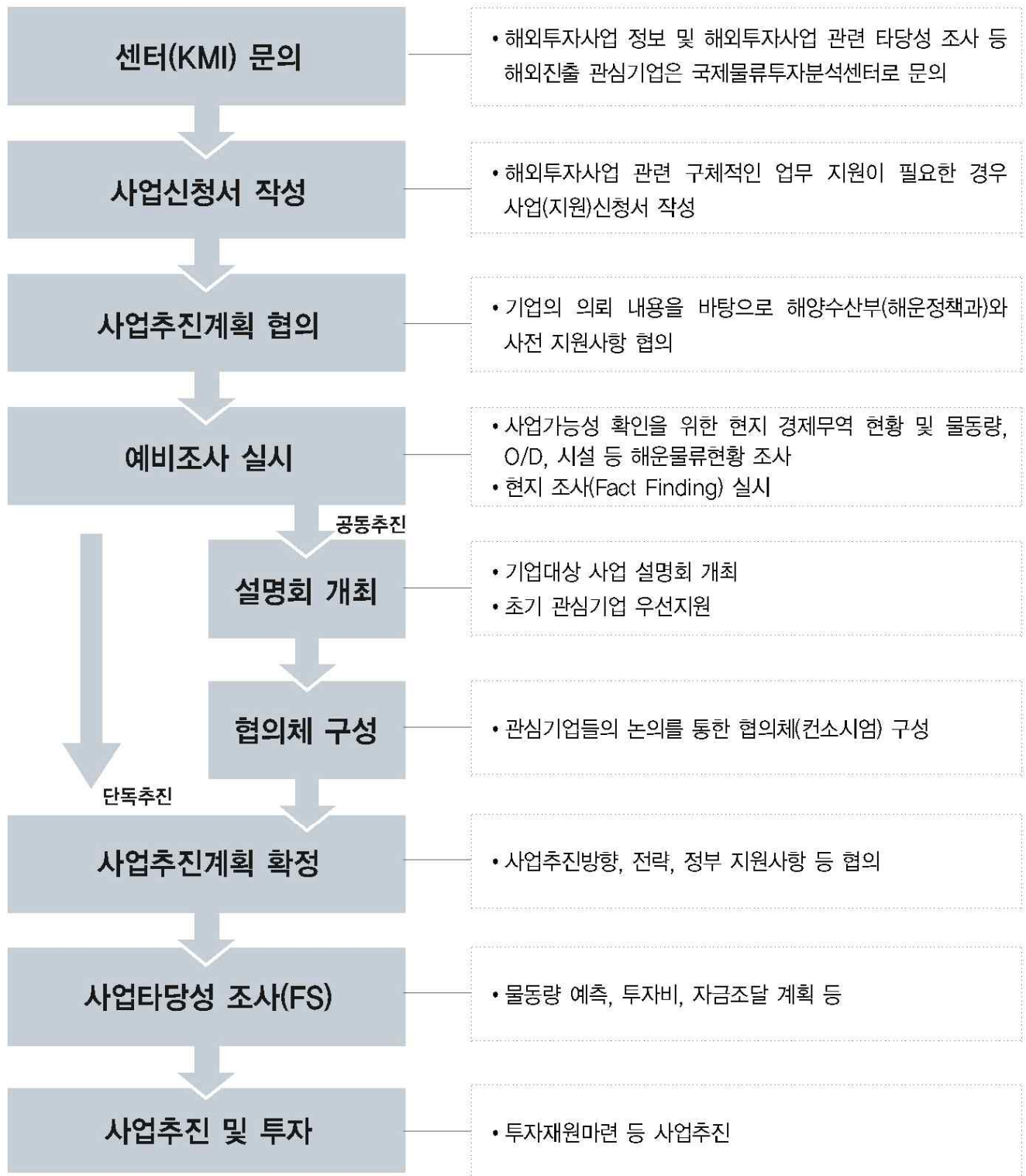
-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·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
 - * 해외 현지법인 설립(단독, 합작, 합자 투자 등) 등 사업거점 확보
 - *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
 - * 현지 물류기업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 업체 등) 인수·합병
 - * 해외 항만·터미널·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
 - *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

○ 지원 내용 및 일정

-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(국고보조금+자부담 matching)
- 신청기간 : 2015. 9. 14(월) 18:00 까지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.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